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 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시 - 오후 1시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새벽기도: 아침 6시 30분 - 7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스님이 한국에 계시는 관계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아침예불은 쉽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진리의 물 마시는 사람
 평안한 마음으로 이를 즐기고,
 지혜 있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 속 진리에서
 즐거움을 찾네.

He who drinks of the waters of Truth, he
 rests in joy with mind serene. The wise find
 their delight in the DHAMMA, in Truth
 revealed by the grea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입적 후 재산출연 적극 지지”: 원로회의 의장단.법주사 교구총회 동참 결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스님)는 지난 24 일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입적 후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을 적극 지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은 “분한신고를 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로회의를 할 때 이번 제도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은 “이미 10 년 전에 기증 서류와 유언장을 작성해 신도들 보는 앞에서 공개하고, 부처님을 모신 불단에 (관련서류와 유언장을 담아 밀봉한 토종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 부의장 지혜스님, 부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해 혜승스님, 정무스님, 혜정스님 등 6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 5 교구본사 법주사(주지 노현스님)도 종단에서 추진하는 ‘입적 후 사유재산의 종단 내(內) 출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주사는 지난 25 일 스님 46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총회를 개최하고 “종단차원에서 진행되는 입적 후 사유재산 출연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교구총회에는 총무원 총무국장 종민스님과 박종학 사찰교무팀장이 참석해 종단 방침을 설명했다. 법주사 주지 노현스님은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경우 스님들의 재산이 세속으로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절집의 정재(淨財)는 절집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현스님은 “종단에서 추진하는 이번 총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교구총회에서 동의한 만큼 되도록이면 분한신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구총회를 개최해 ‘입적 후 사유재산의 종단 내 출연’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한 교구본사가 5 곳으로 늘었다. 법주사를 포함해 쌍계사, 백양사, 수덕사, 금산사 등이다.

“삼보정재, 종단밖 유출 막아야 한다”

입적 후 스님들의 사유재산이 종단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지난 23 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스님들이 “삼보정재의 종단 밖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김형남 변호사(산아 법무법인), 김웅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어 각계 스님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제도 시행 배경’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승가공동체의 기본은 공유의 정신이며, 모든 시주물 역시 삼보정재로 승가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출가수행자의 재산을 사찰명의, 본사명의 등 공적으로 등록·관리해 승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질서 유지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영담스님은 “본 제도는 생존 당시에 스님들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갑작스러운 입적 등으로 인한 재산 상속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 재산은 승려복지와 승가교육의 재원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형남 변호사는 ‘법률적 이해’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령은 엄밀히 보자면 유증을 하거나 사인증여를 한 승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약도 주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종단뿐만 아니라 교구본사에도 지정 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스님들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웅철 교수는 ‘이웃 종교(종단)의 사유재산 출연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김웅철 교수는 “대한기독교감리회의 경우 교회 재산은 총본부에 귀속되고, 교회의 자산을 신도들의 총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도입되고 있다”면서 “(조계종의) 제도 시행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사찰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종도들의 신뢰”라고 지적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싸움의 원인은 소유욕”...스스로 비워서 큰 가르침

1 년 전 김수환 추기경이 못사람들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남겼다면,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또 하나의 향기로운 가르침을 남겼다. 자신의 대표 산문집 <무소유>를 마지막까지 실천하려는 듯 그는 자신의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일체 아무도 것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의 ‘무소유’는 세속에서 왕자의 호사를 누리 뒤 세속을 버린 석가모니 부처의 삶과도 다른 것이었다. 바닷가 마을의 흠어머니 아래서 자라던 그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 널 욕성회비가 없어 선착장에서 일하던 숙부를 찾아갔다가 돈을 타지 못하고 울며 돌아서던 아이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글재주가 있었음에도 원고지 살 돈이 없었던 차에 소풍을 가 보물찾기를 하고 상으로 탄 원고지에 처음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며 즐거워하던 가난한 소년이었다.

보릿고개를 겪었던 이들이 한을 풀려는 듯 하나같이 돈에 욕망을 건 삶에 매달렸지만, 그는 욕망의 거센 물살을 역류했다. 법정 스님의 5촌 조카인 현장 스님(전남 보성 대원사 주지)은 “불일암 부엌엔 ‘먹이는 간단 명료하게’란 글이 쓰여 있었는데, 스님은 늘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두세 가지의 단출한 반찬만을 먹고 지냈다”고 회고했다.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물던 때 송광사에 출가했던 인도 히말라야 다람살라의 청전 스님은 “누추한 옷으로 지내는 모습을 본 스님의 한 신도가 당시로는 가장 좋다는 옷감으로 승복을 해 선물했는데, 자신의 몸엔 걸쳐보지도 않고, 행자인 내게 그대로 줄 만큼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다”며 “그 스님의 뜻을 기려 33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도 그 옷을 입고 있다”고 했다. 외아들의 몸으로 출연히 출가를 감행한 그는 물건은 물론 사람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해가 떨어진 뒤에는 어떤 손님도 암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개인생활에도 철저했다. 따라서 대중적 환호와는 달리 그에겐 친구도 별로 없었다. 대신 그는 암자에 찾아온 다람쥐와 새와 달빛을 벗으로 삼으며 그 순간의 행복을 만끽할 줄 알았다.

불일암에서부터 40 년 이상 그를 가장 가까이 모셨던 재가 신자로 꼽히는 원정거사 위재춘(64)씨는 “열반 전날 창문 밖으로 눈 쌓인

복악산을 바라보며 ‘복악산 자락이 참 좋다’고 하셨다”면서 “비록 병으로 호흡은 거칠었지만 열반 직전까지도 눈빛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그렇게 총총한 의식을 간직한 것은 무욕의 맑은 삶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인간의 역사’를 ‘소유사’(所有史)이며, 끝없는 인간들 간의 싸움의 원인과 고통이 ‘소유욕’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소유’는 돈이나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금력과 명예와 사랑을 다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는 “때가 지나도 떨어질 줄 모르고 매달려 있는 것들이 보기가 민망스럽다”면서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산뜻하게 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빈자리에 새봄의 움이 틈다”고 했다. 이 세상에서 변치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라던가. 그 역설처럼 그는 우리가 남길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남겨주었다. 그래서 그는 ‘이 순간’에 충실하며 ‘지금 행복하라’고 했다.

“자동차, 좋은 가구, 권력 등 이런 욕망들은 막상 갖게 되면 한동안 행복할진 모르지만 머지않아 시들해진다. 이들은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뤄야 하는 목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봄날 활짝 핀 꽃들에서 행복의 비결을 들으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라.” 열반 전날 법정 스님은 고향인 해남의 미황사에서 금강 스님이 보낸 동백과 매화 꽃잎들을 하나씩 매만지다 “올라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행복에 겨워 했다고 한다.

-한겨레 신문 3월 12일 기사에서 발췌 -

칭찬받아 마땅한 법정스님 문도들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생전보다 입적 후 더욱 사회전체에 회자되고 있다. 스님의 유지가 공개되면서 ‘역시 법정스님’이라는 세간의 찬탄이 쏟아져 나왔다. 또 평상에 가사 한 장만 덮은 채 스님의 법구가 이운되는 모습이나 나뭇가지 쌓아놓은 간소한 다비장에서 하얀 연기로 화하는 장면 또한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일이었다.

법정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비우고 버리라고 평소 강조했던 말씀이 고스란히 실렸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회향이 가능하도록 한 데는 상좌와 문도스님들의 숨은 공이 크다. ‘법정스님 다비준비위원회’라는 명칭부터 그렇거니와 이곳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하나같이 스님의 평소 말씀을 유지로 받들겠다는 문도들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은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 비해 원균은 당시 1등 공신으로 추존됐음에도 이순신을 포함한 형편없는 패장이라는 낙인을 달고 있다. 이순신의 후손은 연이어 정계에 진출하며 충무공의 업적을 선양한 반면, 원균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게 학계 일각의 주장이다. 그만큼 후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아무리 법정스님이 무소유 정신을 회향하고 싶어도 남은 이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사회적인 반향도 줄어들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상좌와 문도스님들의 행보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법정스님의 다비가 엄수된 후에도 세간에는 설왕설래가 계속 되고 있다. 스님의 출판물을 정말 절판할 것인지, 유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소중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문도가 돼 법정스님의 정신이 오래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미국 부다나라를 후원해 주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드리는 글

귀의삼보 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불국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소송 선각 인사 올립니다. 미국에서도 불교 포교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가장 미국적인 중부지역에서 포교를 시작한지도 2002년이 엇그제 같은데 십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고 하는 목전에 서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미국 땅에서 포교하고 있는 저나 한국에서 후원하는 후원회원 모두는 참으로 많은 시련들을 헤쳐 나가야 했었습니다. 가야할 길은 먼데 사방이 얼음산과 폭풍 앞에 가로막힌 듯이 속수무책일 때도 있었고, 바다 깊은 곳에 갇힌 듯이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소문” 앞에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듯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선지식의 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났던 수행자들의 다른 모습들이었고 이 모든 것을 이겨냈던 우리들은 의지와 뜻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야 말로 한 단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발판이자 소송을 믿어왔고 의지와 용기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고국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셨던 스님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전심전력으로 매진하며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함에 있고, 더 나아가 중생구제를 통한 불국토 건설에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삼귀의 오계와 사홍서원을 부처님 전에 약속하고, 사성제 팔정도를 마음깊이 새기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을 내 안에만 묻어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실천 속에서 깨달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법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며, 대중들의 고통과 번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자비와 열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자신의 수행도 더욱 수승해져서 깨달음에 한 발짝씩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부족한 소송이지만 소송과 함께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다나라 창건불사에 뜻을 같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다나라 창건에 앞서 창건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애틀랜타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매달 한 번씩 지금까지 꾸준히 법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법회가 거듭될수록 애틀랜타 지역 불자님들의 믿음과 신심도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그동안 스님들과 불자들의 마음 모은 불사 동참으로 애틀랜타에 부다나라 도량불사의 첫 단계인 부지확보 계획의 약 70% 진척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한 사람의 꿈은 단지 꿈으로 끝나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다면 그 꿈은 원력으로 승화되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소승은 믿습니다.

일 년에 한번이지만 조국 대한민국에서 스님과 불자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행복하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한국후원회 (약칭: 불국회) 에서는 매년 일 년에 한 번씩 해외 포교에 관심을 가진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특별정기 법회를 갖습니다.

4월 18일 오후 2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법겠습니다.

뉘올 때까지 심신이 모두 청안하시고, 부처님과 신장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마음모아 축원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 불. 법. 승.

불기 2554(2010)년 3월 22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 주지 선각 합장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새로운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매달 2째주 일요일마다 갖는 애틀랜타 부다나라 정기법회 이외에도 신도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도님 집에서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4월 3째주 (4월 18)일 일요일 부다나라 정기법회는 회장님과 신도님들이 중심이 되어 거행합니다. 법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도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지스님이 참석하지 못하는 법회지만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불기 2554년 (201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칠일기도를 봉행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5월 23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봉축칠일기도와 일년연등 모연에 동참 바랍니다.
- 매달 3째주 전법 기도 법회때 마다 새로운 불교 찬불가를 배웁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찬불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주지 선각스님이 2010년 한국불국사 후원회 정기법회 참석차 한국으로 일시 귀국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실천과 전법의 공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BTN 불교 TV, BBS 불교방송, 불교신문사,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의 후원으로 열립니다. 선각스님은 “해외 포교에 대한 관심 추구하고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이번 법회에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부 법회 2부 공연으로 구성된 법회는 찬불가 가수 머무와 다래, 가수 박정식, 재미민족예술가무단 단장 손정아, 국악가수 신이나, 가릉빈가 합창단, 부다나라 총창단이 출연합니다.
법회 장소와 시간은 4월 18일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갖습니다.

2010년 3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00번 병오생 Eric Smith, 101번 을묘생 재선(Chaeson) Smith, 503번 경술생 임소영, 504번 경진생 한도연.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평불사 : 경술생 임소영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